

설문결과 “미래창조스쿨 잘 모른다, 하지만 기대된다”

미래창조스쿨 인식조사

류제원 기자 jennyoo95@khu.ac.kr

미래정책원은 지난 6일, 3월에 실시됐던 ‘미래창조스쿨에 대한 인식조사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설문은 온라인으로는 지난달 7일부터 20일, 오프라인으로는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학교 구성원들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잘 모르나 설립 취지나 사회진출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설문조사에는 학부생 4,215명을 비롯한 교원 273명, 교직원 115명, 대학원생 259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5점 척도(리커트 척도)로 발표되었으며, 예컨대 1점은 ‘매우 그렇다’, 3점은 ‘보통’, 5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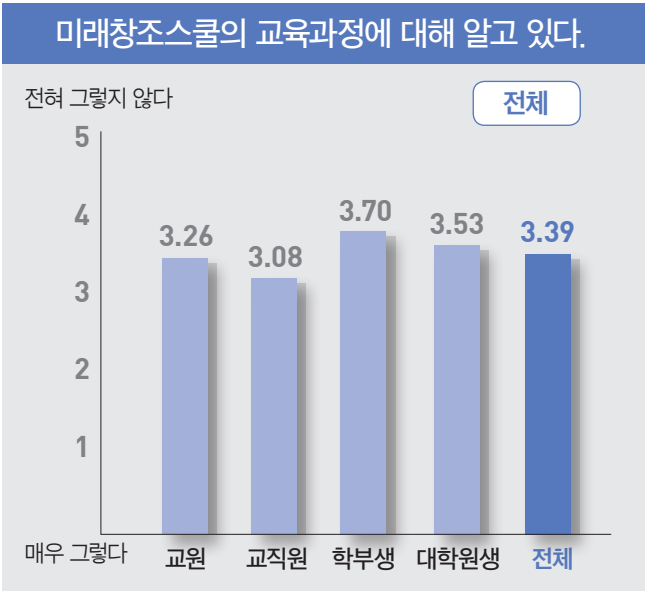
미창 목적에 공감, 특히 오픈랩에 대한 기대 높아

설문조사는 미래창조스쿨의 전반적인 내용과 교육과정, 오픈랩, 인증제, 그리고 명칭 등에 대해서 이뤄졌다. 먼저 ‘미래창조스쿨의 설립목적에 공감하고 설립에 찬성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평균 2.4점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1, 2학년(2.37점)이 3, 4학년(2.45점)보다 더 긍정적으로 기록했다.

대체적으로 설립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 ‘교육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균 3.39점으로 구성원들은 정작 미래창조스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직원 3.08점, 교원 3.26점, 대학원생 3.53점, 학부생 3.7점을 보여, 미래창조스쿨에 대한 학부생의 인식이 다른 구성원들 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프로그램 완성과정에서 학부생의 니즈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제기됐다.

“설문조사 통해 처음 알았다”는 등 홍보 부족 드러나

실제로 학부생들은 주관식 응답에서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어 설문조사를 통해 처음 알았다”며 “미래창조스쿨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홍보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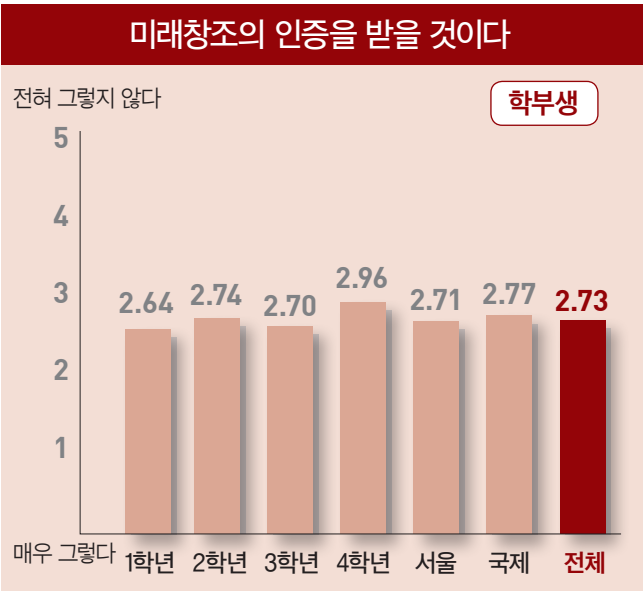


학부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오픈랩 공간이었다. 조사 결과 ‘오픈랩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간인가’를 묻는 문항에 대해 학부생들의 응답은 평균 2.19점으로 ‘그렇다’는 입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특히 취업을 앞둔 3, 4학년(2.15점)이 1, 2학년(2.22점)보다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오픈랩 운영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내용’으로는 ‘정보교류’와 ‘상답’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으며, ‘오픈랩에 포함되어야 할 공간’으로는 ‘정보공유실’과 ‘모둠활동실’이 꼽혔다.

한 학생은 설문조사의 주관식 응답에서 “오픈랩이 같은 분야에서 같은 목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카페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학생과 교수, 또는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래창조스쿨은 ‘인증제’ 형식으로 이뤄진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인증제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가령, ‘인증제는 학생들의 사회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문항에 대해 학부생들은 평균 2.41점(그렇다)의 긍정적인 반응을 내렸으며, 특히 1학년(2.33점)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다음의 두 문항, ‘나는 미래창조스쿨의 인증을 받을

것이다’, ‘나는 미래창조스쿨 교육과정에 참여할 것이다’에 대해서도 1학년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스쿨 운영준비팀은 “취업을 앞둔 4학년에 비해 1, 2, 3학년의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석했다.

인증제는 호평, 미창 명칭은 불평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그동안 사용되어온 미래창조스쿨이란 명칭 외에 새로운 명칭을 공모했다. 이는 미래창조스쿨이 또 하나의 단과대학이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설문조사의 주관식 응답에서 한 학생은 “이름 때문에 전혀 이런 취지인지 몰랐다”며 “자칫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미래창조부나, 이화여대의 미래라이프 대학과 혼동할 수 있다”며 “취지와 어울리지도 않고 이름만으론 어떤 곳인지 모르니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모된 명칭은 ‘미래인재개발팀’, ‘디딤돌 스퀘어’, ‘길잡이센터’, ‘미래비전스쿨’, ‘경희인재양성소’, ‘미래교육원’, ‘취업진로광장’, ‘CAS(Course for Advanced Society)’ 등이다.

설문조사에 응한 학부생들은 이외에도 미래창조스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비쳤다. A학생은 “또 다른 단과대학의 인식이 있어선 안 된다. 또한 기존의 취업 프로그램처럼 기업에 합격하는 방법만 제시한다면 미래창조스쿨이 새로 만들어지는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B학생은 “급하게 만들기보다는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한다”며 “미래정책원에서 여러 안을 제시하면 학생들이 모여 의견을 개진하고 지속적인 설문을 실시해서 합의를 보는게 어떨까?”고 의견을 제시했다.

미래창조스쿨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지금은 학교의 내실을 다질 때”라며 “학교의 기본 투자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외부 사람들에게 이름만 번지르르한 어떤 것을 만드는게 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미래창조스쿨 운영준비팀은 “미래창조스쿨의 설립 취지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한 면이 있으나, 학생들의 공지와 사회진출에 미칠 효과에 대해서는 전 구성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프로그램을 더 확고히 개발하는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특히 오픈랩은 정보공유와 사회진출을 위한 연습장의 역할하려면 세심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YUNG HEE UNIVERSITY**

Global Collaborative 2017 Summer Program

“국내외 석학 및 국제기구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세계 여러나라 학생들과의 교류의 장을 경험하세요!!”

- 프로그램 기간
- 개설강의
- 참여대상
- 신청기간
- 장학금
- 문의

2017.06.30 ~ 07.27 [4주간]

“Humanity, Civilization and Global Governance” 에 특화된 21개 강의 (GC홈페이지 참조)

국내외 대학(원)생

2017.03.13 ~ 04.30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경희대학생의 경우 미래문명원 네오르네상스장학 신청 가능 (추후 공지예정)

미래문명원 Tel: 02-961-0995 Email: summer@khu.ac.kr 홈페이지: <http://gafc.khu.ac.kr/gep> 페이스북: www.facebook.com/khugc

